

“서원에서 열리는 ‘살롱 드 월봉’ 인기 만점이죠”

유쾌한 상상력,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이들이 뿌린 작은 씨앗이 지역 문화 텃밭에 싹을 내리고 있다. 지역 문화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인 문화 기획자들을 만나본다.

그들의 유쾌한 상상

문화판을 바꾸다

(1) 박시훈 교육문화공동체 '결' 대표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 월봉서원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잊혀진 공간이었다. 찾는 이 거의 없는 이곳에 소박한 문화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 달빛 쏟아지는 밤, 잔잔한 가야금 연주에 취하고, 향기 가득한 차잔을 앞에 두고 도란 도란 이야기가 펼쳐진다. 문화재청과 광산구청 등의 지원으로 교육문화공동체 '결'이 사업에 뛰어들면서부터다. '살롱 드 월봉'은 프로젝트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박시훈(40) 교육문화공동체 '결' 대표는 '결'의 창립 멤버다.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를 포함, 민문식씨 등 초창기 멤버 4명이 꿈꿨던 건 도시형 대안 학교였다.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와 연관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게 됐고, 2007년 광주비엔날레 시민프로그램 코디로 참여하면서 문화 분야로 오지랖이 넓어졌다.

'결'의 지향점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월봉서원 역시 "왜 이 좋은 곳에 아무도 오지 않지?"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서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절과 한자 교육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3년 간 진행된 '살롱 드 월봉'은 지역의 교수, 철학자, 종교인, 음악인, 화가 등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결'의 또 다른 대표 프로그램은 무등산 자락에서 진행된 '저 왔어요 의재샘'이다. "의재선생님이 아이들을 맞았다면 어떻게 했을까"하는 상상에서 시작된 기획은 하루 반나절 무등산에 오르고, 미술관에 들르고, 그림을 그리고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무등산장에서 '문진성시' 프로그램도 진행했고 올해는 대인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단장도 맡았다.

문화관에서 일하다 보니 전국에서 광주를 찾는 이들을 알음알음으로 안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북촌과 서촌 투어 프로그램을 눈여겨 보던 그에게 반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광주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투어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결'에서 돌아볼만한 코스는 없다. 총장로와 양림동 등을 엮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꾸린 게 '광주 작은 여행'이다.

"여행지가 인기를 얻으려면 '이야기'와 '사람'과 '먹을거리'가 어우러져야 한다.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풍광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지에서 온 지인들과 둘러본 양림동은 의미 있었다. 사람들이 광주에 올 때 늘 찾는 '총장로'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푸른길과 동명동까지 연계해 도시에서 누군가가 전하는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고, 광주 지역의 가로수가 다양하고 참 예쁘다. 이야기를 엮어서 가로수 투어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올해는 다소 정체 상태에 있는 여행형 사업을 확장시키는 게 목표다. 일본 여행에서 일본 철도와 지역 문화 연계 프로그램을 접한 그는 월봉서원까지 가는 '임곡 89번'을 활용한 버스 투어 '헬로우 월봉'을 기획했다. 각 정류장을 스토리텔링하고 안내 책자도 만들었다. 버스 카드에 디자인을 입히고 참여후기를 통해 홍보하는 모모체험단도 운영중이다.

'도시 축제 창의학교'에서는 '광주에 설레이는 축제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안고 청년들과 '광주'에 이불맨 축제, '크리스마스 나눠 먹기'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역자원 활용 문화교육 프로그램 관심

도시 구석구석 안내 '광주 작은 여행'형

대인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단장 맡아

"문화 기획자는 매개자라고 생각한다.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소재와 자원을 연결해 주고, 예술가와 예술가끼리 협력할 수 있도록 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 기획자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직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은 아쉽다."

어린이 마을 디자인 센터는 박 대표가 꿈꾸는 것 중 하나다.

"공공 디자인 사업들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을 귀워맞추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들이 제안하고 어른들이 돕는 게 필요하다. 마을 안 개집부터 먼저 시작해서 공공시설에 아이들의 의견을 집어 넣으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고 도시 색깔이 달라질 거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련됨, 간결함과 함께 아가자기 함이 가미된 재미있는 도시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에 관심이 많은데 미래를 만들어가는 발전소라는 개념을 감안한다면 아이를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는 듯한 현재의 프로그램은 조금 아쉽다."

광주 자원을 활용하면 광주사(史) 광주학(學)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박 대표는 우선 "광주 관광 안내 상품으로 봉고차 안내 투어 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웃었다.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박시훈 교육문화공동체 '결' 대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에 작품집 '금남로 가는길' 17호 출간



광주일보 신춘문에 작가들의 신작을 묶은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 제17호(전일출판)가 나왔다.

광주일보신춘문학회(회장 채희운·이하 문학회)가 출간한 이번 작품집에는 24명의 작가들이 시, 소설, 동시, 동화, 콩트 등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문학이 위축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학회원들의 활발한 작품활동은 참채된 지역문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역문학회가 17회에 걸쳐 작품집을 발간하고 동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2014년 광주일보신춘문에 응모작이 2023편이 접수돼, 광주일보 신춘문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응모를 기록한 것과 맞물려 문학 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삶이 버거울수록 문학적 열정이 오롯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지면에 문학 애호가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작품집에는 노창수·전원범·정려성·정영희·전정희 시인이 저마다 개성 넘치는 신작시를 수록했고, 김성범·송재진·조기호씨는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동시를

선보였다. 김복·박소명·박월선·박찬섭·손병현·안영욱·정대연·정혜진씨는 어린이들과 어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교훈과 감동이 담긴 동화를 실었다.

소설가 양원욱·오윤주·주원규·홍광석씨는 저마다의 시각으로 삶의 이면에 드리워진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냈고 최건씨는 유일하게 페이스북이 묻어나는 콩트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문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광주일보가 수여하는 제9회광주일보신춘문예상(이하 광일문예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윤삼현씨의 '철마와 소녀'와 심사평, 수상소감도 지면을 장식했다.

광일문예상 심사를 맡은 채희운 소설가와 고재중 시인은 수상작으로 뽑은 윤씨의 '철마와 소녀'에 대해 "분단의 아픔을 사실적이면서도 상상력을 빌어 이야기를 꾸며내는 힘이 감동"이라고 평했다.

채희운 문학회 회장은 "금남로 가는 길" 같은 귀한 작품 발표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농악놀이와 신명나는 굿놀이 한판

전통문화관, 11~12일 올해 첫 주말상설공연

광주 전통문화관 올해 첫 주말상설공연이 야외 너털마당에서 관객과 함께 이루어지는 농악놀이를 꾸며진다.

오는 11일 오후 3시 토요일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8호 관산농악 예능보유자 정득재 명인과 보존회 회원들이 한해의 복을 기원하는 갑오년 길놀이 한마당을 펼친다. 솟을대문 입구에서 펼쳐지는 문굿으로 출발해 공동선에 대한 의례와 가가호호의 안녕을 축원하는 마당밧기로 모든 액을 물린 뒤 마지막으로 관객이 다함께 어우러져 신명나는 판을 이루고 일상의 피로를 푸는 판굿으로 마무리한다.

12일 오후 3시 일요일에는 우리문화에 술원을 초청해 체험과 공연이 함께하는 '민속노리' 한마당을 펼친다.



흥겨운 사물놀이 연주와 함께 관객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고 덕담을 풀어놓는 '풍물재수구'무대로 문을 연다. 이어 옷놀이, 제기차기, 공기놀이, 딱지치기, 팽이치기, 큰줄넘기 등 체험행사가 진행되고 '시렁 설장구' 연주가 이어진다. 문의 062-232-1501~2, /이보람기자 boram@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맞춤 웨딩의 명소 신양파크호텔

2014년 신년 **감사 웨딩 할인 축제**
기간 | 2014년 2월~3월(2개월)

감사할인 특별메뉴 (200명 이상)
뷔페 ₩30,000원~
스테이크 ₩35,000원~ (세금별도)

기타혜택: 객실 2실 무료제공, 꽃길 무료제공, 폐백실 무료제공, 열음조각 무료제공, 음주류 50% 할인, 웨딩컨돌 50% 할인

Shin Yang Park Hotel 예약문의 062)221-4101~3